

지역 매 아 리

정읍시 샘골보건지소

'요실금 예방과 극복' 강좌

정읍시보건소(소장 문상용, 이하 보건소)는 전북과학대학교 여성간호학과 정종희 교수를 초빙하여 오는 12일 오후 3시에 샘골보건지소 교육실(2층)에서 여성들의 말 못할 고민인 요실금에 대한 예방과 관리에 주제를 주제로 강의를 실시한다.

요실금은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은 아니지만 여성들의 수치심을 유발하여, 자신감을 결여시켜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질환으로 중년 여성들에게 자주 발병한다.

이에 교육은 다양한 종류의 요실금 질환에 대한 사례별 원인과 증상을 시작으로 체중조절이나 식습관 조절을 통한 예방과 극복, 요실금 자가진단법 등이 실시됐다.

보건소는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샘골보건지소에서 기체조 명상 교실, 성인·청소년 집합운동, 건강체조, 라인체조, 순환운동, 요가교실 등 6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삶의 질에 대한 시민들의 높아진 눈높이에 맞추어, 다양한 건강관리프로그램 개발과 건강강좌를 실시하여 건강한 생활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농어촌공사 정읍지사

청렴문화 정착에 '앞장'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지사장 신진균)는 4일 지사 대회의실에서 직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교육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사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선물 안주고 안받기 운동을 적극 동참하여 맑고 투명한 사회문화정착을 다짐하는 자리였다.

또한,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성실한 직무수행 △직위를 이용한 권한 남용, 청탁·알선행위를 하지 않는 공정한 직무수행 △금품과 향응을 받지 않는 깨끗한 직무수행 등 모두 3개 항목이 담겼다.

신진균지사는 "화합과 신뢰·청렴을 바탕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공사현장을 함께 만들어 마무리를 잘 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반부패·청렴정책의 적극적인 실천으로 지사의 청렴도 제고를 위해 모든 직원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부안 관내 학생의 탈선 범죄 증가 대책마련 시급

교육당국 청소년 범죄 실태 파악조차 못하고 있어

부안지역 학생들의 각종 범죄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교외 생활지도에 손이 못미쳐 청소년보호 대책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더욱이 농촌지역 부안 관내 청소년들이 도시지역에 비해 놀이공간이 대부분 한데다 결손가정 청소년들에 대한 관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청소년문제 심각지대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학생들의 탈선과 선도에 앞장서야 할 부안교육 당국은 학생들의 범죄 발생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교외 생활지도에 무성의함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4일 부안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청소년 범죄는 성폭력 2건, 폭행 6건, 절도 9건, 사기 2건, 자동차 불법사용 6건, 기타 4건 등 31건의 발생하였다.

그러나 올 지난 7월말 현재까지 부안 관내에서 발생한 중·고등 청소년 범죄는 성폭력 1건, 폭행 18건, 절도 8건, 사기 14건, 기타 2건 등 43건이 발생하여 전년도 대비 12건이 증가 갈수록 집단화·흉포화되면서 증가 일로에 있다.

이처럼 부안지역 청소년 범죄는 증가하고 있는데도 교육 관계자들의 범죄 예방을 위한 선도활동이 미흡해 범죄발생이 줄지 않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비난이 일고 있다.

부안지역의 경우 면 지역 통학 학생들

이 터미널 버스정류장 인근 민화 가게·오라실·노래방 등 청소년유해업소에서 밤늦게까지 방황하고 있으나 학교 교사들의 교외생활지도·선도활동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교육당국의 교외생활지도와 선도활동이 이뤄지지 않는 이유는 지도감독해야 할 교사들이 관외에 거주. 학교 수업이 끝나자마자 귀가해버려 교외 생활지도가 허술,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부안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은 학교내 폭력 발생시 교육지원청에 보고를 하지만 성폭력이나 절도 등 다른 범죄는 집계 할 필요가 없고 고지할 의무도 없다고 말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복지사각지대 없는 행복한 고창 향해 달려갑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형버스 전달

고창군(군수 유기상)이 주민과 어르신들의 이용이 편리할 수 있도록 고창군사회복지시설(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에 대형버스를 전달했다.

4일 종합사회복지관 광장에서 진행된 전달식은 유기상 고창군수, 조규철 고창군의회장, 복지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고창군은 복지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편안하게 셔틀버스를 이용하여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1억9600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기존의 노후화된 버스를 교체했다.

고창군사회복지시설장 대인스님은 "교통 접근성이 떨어져 복지관에 오지 못하는 분들의 애로사항이 언제나 안타까웠다"며 "더 많은 분들과 함께 하는 행복한 복지, 나아가 찾아가는 복지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복지는 필요한 곳에 골고루 그 손길이 미쳐야 하고,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며 "어르신들의 든든한 노후를 책임지는 정책과

지원으로 따뜻한 효심행정을 펼쳐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창군사회복지시설은 2007년 개관한 이후 주민이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으며,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에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해마다 이용자 수가 늘어 지난해에는 연간 8만여명의 회원들이 시설을 이용하는 등 복지서비스, 교육 및 여가문화 제공 중심기관으로 자리매김 해나가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인·허가민원 원스톱으로 처리해드립니다"

정읍시, 민원과에 전담창구 설치

정읍시가 민선 7기 들어 각종 인·허가 민원의 신속한 처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4일 정읍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3일 여러 부서에 분산돼 있는 허가업무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인·허가민원 원스톱 처리 창구(이하 원스톱창구)'를 종합민원과에 설치했다.

'원스톱창구'는 민원인이 인·허가 민원과 관련해 해당 부서들을 일일이 찾아다니지 않아도 일괄적으로 민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별도로 설

치한 허가민원 전담 서비스 창구이다.

원스톱 창구에는 1회방문당담 담당 1명과 민원접수 공무원 1명이 전담 배치됐다. 이들은 모든 인·허가 민원의 접수를 받아 처리 주관부서를 지칭, 민원서류를 처리 담당자에게 이송한 후 민원인에게 접수처리 결과를 문자로 알려준다.

특히 처리 기간이 5일 이상인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서류 접수 2일 이내에 처리 주관부서에서 처리 예정일을 문자로 알려줌으로써 민원인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처리를 기다리는 동안의 조바심도 덜어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처리 주관부서가 불분

명하거나 부서 협의가 필요한 복합민원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 실무협의회를 갖고 해결 방안을 모색, 신속한 민원처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원스톱 처리 대상은 2개 이상 부서가 관련된 모든 인·허가 업무가 대상이다. 관련해 시에 따르면 공장설립 허가, 개발행위 허가, 농지전용 허가, 산지전용 허가 민원이 많다.

유진섭 시장은 "원스톱 창구 운영은 민원이 복합민원 해결을 위해 각기 다른 부서를 방문하는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각종 인·허가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해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농협이 사업활성화 핵심리더교육을 지난달 30일부터 1박2일동안 농협중앙회 청년교육원에서 관내 200여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합원이 행복한 부안농협'

사업활성화 핵심리더교육 성료

부안농협(조합장 김원철)이 사업활성화 핵심리더교육을 지난달 30일부터 1박2일동안 농협중앙회 청년교육원에서 관내 200여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첫날 청년교육원 손용석교수의 '협동조합의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협동조합의 정의와 정체성, 구성요소와 운영, 조합원의 역할과 자제에 대해, 우리 농협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시간과 둘째날에는 이진석 영남사이버대학 교수의 '정서치유를 통한 행복찾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행복을 위한 선행조건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는 시간과 셋째 시간에는 손영희 국악예술단 단장으로부터 '협동'의 배움을 심어주는 우리 소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심명나는 우리 가락에 대해 함께 소리를 배우는 시간과 저녁에는 부안농협 발전 농

담(農談)토권을 반 별로 토론회의를 가졌다.

이어 둘째 날에는 반 별로 토론한 내용을 반 별 대표자가 직접 발표하는 시간과 김원철 조합장의 '부안농협 경영 비전'을 제시하는 시간을 비롯하여 셋째 시간에는 청년교육원 명정식 원장으로 부터 '농협화인사, 지도자의 마음가짐'라는 주제를 가지고 특강을 받았다.

김원철 부안농협장은 "폭염과 가뭄으로 손해를 입었는데 아침에는 앞이 보이지 않도록 비가 오는데도 한 분도 빠짐없이 교육에 참여하여 열정적으로 공부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다"며 "앞으로 이러한 교육을 많이 가져 항상 주민의식을 가지고 나의 농협이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조합원이 행복한 부안농협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정읍시보건소, 전국보건교육 경연대회 '보건교육부문 대상' 수상

정읍시보건소(소장 문상용)가 최근 대구에서 개최된 제17회 전국보건교육 경연대회(이하 경연대회)에서 보건교육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경연대회는 전국 지자체 보건간호사들의 보건교육 역량강화와 주민의 건강생활 실천문화 확산 및 건강증진향상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후원하고 대한간호협회 보건간호사회 주관으로 매년 개최되고 있다. 이번 제17회 경연대회는 전국 시군구 보건간호사, 대학교수 등 4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각 시도를 대표한 부문별 8개 팀이 보건교육과 홍보부스운영에 출전하여 열띤 경연을 펼쳤다. 보건교육부문 전북대표로 참여한 정읍시 보건소는 '뇌졸중! 끝없는 사랑을 나누자'라는 보건교육시

연으로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날 대상을 수상한 보건소에 따르면 "시민의 건강지킴이로써 최선을 다한 노력으로 좋은 상을 받았고, 이제는 오늘이 수상을 발판삼아 최고의 자신감으로 시민들의 건강관리에 앞장서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2018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정읍시는 뇌혈관질환으로 인한 연령 표준화 사망률이 31.1%로 전국 26.6%, 전북 30.1%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에 정읍시 보건소는 뇌졸중으로 인한 사망률감소 및 장애를 최소화 하고자 생명지킴이로 최일선에 있는 보건간호사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주민에 대한 보건교육을 실시해 왔다.

/정읍=김대환기자

"자동차 이제 소유에서 사용으로"

신차 장기렌터카.오토리스 전문업체

"월사용료는 전국 최저 가격"

취득세 0원

보험료 0원

자동차세 0원

초기비용 0원

국산차.수입차 전차종 신차 장기렌트.오토리스

대표 이영근

전국 어디든 상담가능!!
지사 개설 문의

대표전화 : 1600 - 2542

스페셜오토리스.렌터카